

봉사하기 위해 부름받음

놀라 시 리버트 자매
아시아 지역 본부 임원회 대표

하 나님 아버지의 왕국에서 봉사할 수 있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낍니다. 연령이나 인종, 성별 또는 가지고 있는 재능은 각자 다를지라도 우리는 모두 주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며, 주님에게 똑같이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독특한 재능과 능력을 각자 지니고 있으며, 그러한 것들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으며 또한 그들을 사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함으로써 그와 같은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고, 우리가 봉사를 통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가 봉사를 가장 많이 베푸는 대상을 더욱 더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어느 헌신적인 자매님에게서 받은 편지를 조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편지에는 어느 자매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분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메시지는 세상 어느 곳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몇 달 전에 지부장님께서 의해 우리의 작은 지부의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저의 지부에서 자매는 저 혼자뿐이었으므로 그 부름에 대해 어찌 할 바를 몰랐으나, 부름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름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언젠가는 제가 지부에서 유일한 말일성도 여성이 아닌 날이 올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다른 자매가 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를 드린 후에 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해군에 복무하고 있는 한 젊은 말일성도 자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보안 장교로 지명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제가 생각하던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저와 함께 복음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신앙이 강한 자매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새로운 “자매”가 된 메리는 수줍어하고 확고한 간증과 강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번은 메리가 교회에 왔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조금 주저하면서 나름대로 메리와 친해지려고 노력했으나, 잘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메리는 점점 더 복음의 빛에서 멀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최근에 와서야 저는 메리와 이야기할 기회를 갖고 제가 방문 교사로서 그녀를 방문할 수 있겠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메리는 저의 방문을 받아들였으며, 이로 인해 우리의 대화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메리와 대화를 나누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특히 얼마 전에 지부장님과 메리에 관해 대화를 나눈 뒤에는 더욱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메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진 적이 있으며, 그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메리의 삶의 고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연결될 수 있도록 힘껏 도와 주고 싶습니다.

“이제 상황이 거의 정반대가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는 주님께서 저와 서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훌륭하고 활동적인 말일성도 여성을 보내 주지

않은 것에 화를 내었습니다. 제가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깊이 생각해 본 결과, 제가 기도한 것은 애당초 그런 훌륭한 사람이 오기를 기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오기를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야 했습니다. 메리가 제가 필요로 하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경전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했습니다. 또 저에게 필요한 것은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물문경에 있는 가르침처럼,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모사야서 2:17 참조) 제가 하고 싶은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봉사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메리를 사랑합니다. 메리는 저의 자매입니다. 제 능력을 다해 메리를 위해 봉사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얻게 되는 기쁨을 추구하고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

의로운 성품을 물려받으신 분

“리버트 장로는 가족과 교회를 매우 사랑합니다.”

켈린 릭스
처치 뉴스 기자



최 근에 칠십인 제이 정원회에 속하게 되신 리버트 장로와 잠시만 대화를 나누어도 이분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된다.

리버트 장로는 자신의 가족 및 교회에 관해 말하는 것을 무척 좋아한다.

생존해 있는 다섯 자녀와 그들의 배우자에 관해 이야기할 때면 그분의 눈이 안경 안에서 빛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여느 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리버트 장로의 아홉 명의 손자 손녀에 관한 이야기도 그 끝을 찾을 수 없다.

리버트 장로의 가족에 대한 사랑은 후손들에게만 머물지를 않는다. 그분은 자신의 조상 및 아내의 조상에 관해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현하며, 현재 그분의 가족이 누리고 있는 많은 축복도 조상의 은덕이라고 그 공로를 돌린다.

리버트 장로는 “우리는 단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의로움을 베푸는 사람에 불과합니다.”라고 강조한다.

리버트 장로와 놀라 리버트 자매의 조상은 모두 유타주에서 살던

개척자였으나, 두 분은 캐나다에서 성장하였다. 리버트 장로 부부의 조부모는 앨버타 남부를 개척하라는 교회의 부름을 받아들인 다른 회원들과 함께 캐나다로 이주하였다. 리버트 장로는 리버트 자매가 살던 앨버타 카스톤과 근접한 조그만 마을인 글렌우드에서 성장했다.

두 분의 가족도 모두 복음에 충실한 가족이었다. 리버트 자매의 부모는 결혼 후 12일 만에 동가로 선교 사업을 떠났으며, 네 명의 딸 중 둘째인 리버트 자매는 통가에서 출생했다.

“제가 태어난 마을의 이름을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두 살이 다 되어 통가를 떠난 후로는 유타주로 올 때까지 통가인을 한 사람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저의 부모님은 통가 사람들을 매우 사랑하셨으므로 저도 그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성장했어요. 그분들도 복음을 사랑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어요.”라고 리버트 자매는 말했다.

한편 리버트 장로 역시 가족에 대한 사랑과 간증을 키워 가고 있었다. 경제 공황이 극치에 이를 즈음에 리버트 가족은 몇몇 다른 말일성도 가족들과 함께 좀더 나은 환경을 찾아 앨버타 남부에서 북쪽으로 800킬로미터 이상되는 거리에 있는 체리 그로브로 이주했다.

“대부분 포장이 되지 않은 시골길을 우리는 포장 마차를 타고 여행하였습니다. 무척 힘든 여행이었지만 당시 일곱 살인 저로서는 상당한 모험이라고 생각했죠.”라고 리버트 장로는 당시를 회상한다.

리버트 가족은 체리 그로브에서 4년간

머문 후에 글렌우드로 돌아왔으며, 리버트 장로는 그동안 북부 앨버타의 단칸방 학교에서 받았던 교육으로 인해 한 학년을 월반할 수 있었다.

리버트 장로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한다. “체리 그로브에 있을 당시에는 여덟 학년의 학생들이 한 방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배우는 과목에 흥미가 없으면 언제든지 다른 과목을 들을 수 있었죠.”

그 소년은 교실에서 가르치지 않은 것도 배웠다. 리버트 장로는 15세에 교사 정원회 회장으로 봉사했다. 당시 감독이 사고를 당해 다쳤을 때, 신권 정원회에 속한 회원들은 감독의 농장 일을 분담하여 돌보았으며, 정원회 회원들은 돼지 우리와 닭장 및 헛간을 맡아 청소하였다.

“시골 소년들에게 별로 고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당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몇 가지 귀중한 교훈을 얻었는데, 그 중 하나는 일을 효과적으로 위임하지 못하면 그 일을 자신이 직접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임무 지명을 한 후 지명받은 회원이 그 일을 수행했는지 철저히 점검했습니다.”라고 리버트 장로는 설명했다.

리버트 장로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분이 63년 동안 계속해서 풍부한 유머 감각을 키워 왔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리버트 장로가 아내와 처음 만났을 때에 관해 이야기할 때에도 그 유머 감각이 슬쩍 비쳐 나온다.

“1948년 할로윈 파티가 열리고 있을 때였지요. 사실, 우리가 다음 번에 만났을 때에 내는 제가 여전히 가면을 벗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꽤나 실망했어요.”라고 리버트 장로는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다.

그 뒤로 이들 두 남녀는 데이트를 하기 시작했으며, 이들의 구애 기간은 5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 그 당시 키가 약 178cm인 멀린 리버트는 캐나다 공군에서 복무하고 있었다. 제대 후 그는 동부 지역에서 선교 사업을 했으며, 선교 사업을 마칠 때쯤 리버트 자매는 공인 간호사 과정을 1년 남겨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리버트 장로가 기다릴 차례였다. 이들은 1949년에 드디어 결혼을 하였다.

“결혼 전에 저는 아내가 틀림없이 우체부와 사랑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수백 통의 편지를 주고 받았어요. 우리 결혼식 때에는 눈물 한 방울도 볼 수가 없었지요. 모든 사람들은 5년 동안이나 교재해 온 우리가 결혼하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 보았습니다.”라고 리버트 장로는 말한다.

리버트 가족의 가장에게서만 유머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리버트 자매도 남편을 만난 뒤부터 함께 하면서 있었던 일에 대해 웃음을 터뜨리며 이야기 한다.

“처음 데이트할 때부터 저는 이분과 함께 살 경우 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아야 했어요. 그때 우리는 이분이 마련한 파티에 가게 되었어요. 첫번째 춤은 함께 추었는데 그 후로는 도대체 이분이 어디 있는지 볼 수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분의 아버님께서 대신 제 파트너가 되어 주셨어요. 남편은 잘 도와 주는 가족을 두고 있죠.”

리버트 자매도 40년 동안 부부 생활을 통해서 변함없이 그러한 도움을 주어 왔다. 리버트 자매는 남편이 학교에 다니는 동안 간호사로 일하는 외에도, 교회의 각종 보조 조직에서 봉사했으며 음악 위원장 및 워드 공보 책임자로 봉사하기도 했다. 리버트 자매는 이 밖에도 오랫동안 지역 사회의 여러 단체에 참가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왔다.

결혼 후에 리버트 부부는 유타로 이사왔으며, 리버트 장로는 유타 대학교 학사 과정을 마치고 뒤이어 법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은 후 34년간 변호사로



참다운 기쁨은 헌신적인 봉사를 통해

일했다.

리버트 장로는 학업을 마친 직후에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로즈 크레스트 제2와드 감독으로 부름받았으며, 그때부터 계속해서 고등 평의원, 스테이크 부장단 보좌 및 스테이크 부장, 지역 대표 등 많은 시간을 바쳐야 하는 직책을 맡아 봉사하였다.

“이 생애 동안에 누릴 수 있었던 모든 성공은 주로 아내 덕분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내는 저의 현명한 보좌로서 부드러우면서도 확고한 태도를 갖고 있으므로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아내는 경전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아내가 지니고 있는 가장 큰 능력 중 하나는 복음 원리를 실생활에 적용시키는 분별력입니다.”

변호사인 리버트 장로는 아내의 모범에 따라 노력했다. 리버트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다른 대부분의 경우에도 그렇듯이 법률에는 항상 논쟁의 여지가 있기 마련이지만, 그렇더라도 적의를 품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적의를 품지 않고 저의 주장을 펴는 기술을 터득하려고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집안 일과 교회 및 직업으로 인해 늘 바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리버트 장로는 일할 때에는 항상 즐거움을 찾으며 일한다. “이것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직장 일이든 교회 일이든 하면서 즐거움을 얻지 못한다면 그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니파이에서 2:25)이니가요.” 리버트 장로는 자신의 주장을 펴기 위해 경전을 인용했다.

리버트 장로 부부는 모두 주님의 사업을 하면서 여생을 즐겁게 보내기를 원한다.

리버트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이 부름을 받고 마음속 깊이 겸손함을 느낍니다. 제가 알고 있는 멀린 리버트로서는 제게 맡겨진 이 임무를 완수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가 무언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믿지 않으셨다면 저를 부르지 않으셨으리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재능을 모두 발휘하고 나서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은 제 약함을 강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길에 놓여 있는 시련에 대처할 수 있으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멀린 알 리버트 장로

· 출생: 1926년 1월 31일 앨버타 카드스톤에서 찰스 레스터와 델비아 리드 리버트 사이에서 출생함.

· 가족: 놀라 카혼과 결혼. 자녀: 라릴린(디크마트), 루스(렌랜드), 머라(베랜드), 루이즈(니가드), 페리(사망), 클라크.

· 경력: 변호사; 유타주 '81년 올해의 변호사로 선정됨; 미국 법정 변호사 협회 회원

· 교육: 유타 대학교 법과 대학 졸업. 법학 박사 학위 받음.

· 군 경력: 캐나다 공군에서 복무.
· 교회 부름: 선교사, 감독, 고등 평의원, 스테이크 부장 및 스테이크 부장단 보좌, 지역 대표.

부산 서스테이크 청년 축제

부산 서스테이크에서는 청년 창립 기념일을 맞아 마산 와드에서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들을 위한 사랑과 우정을 증진시키는 모임을 가졌다.

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이신 이 동원 형제님의 감리로 열린 모임에서, "청년은 하나님의 딸로서 그 분과 같이 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열심히 이루어자 할 거룩한 사명을 지니고 있다."라는 말씀 모임의 목적으로 주어졌다.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진행된 모임의 제1부는 "이브를 통해 배우는 교훈"으로, 에스더의 용기와 신앙에 대한 말씀과 감미로운 음악을 듣는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제2부는 "달란트"라는 제목으로 청년들이 지닌 다양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는 시간이 되었다. 베니스의 상인, 백설 공주, 말팔랑이

길들이기, 탕자의 방황, 에어로빅 뮤지컬, 시애틀, 시낭송 등 다채로운 재능을 통해 청년들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과 신앙, 그리고 우정이 어우러진 한마당이였다. 또한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느꼈다. 밝은 웃음을 선사하고 깊이 생각하게 하며, 한번쯤 반추해 보는 시간이라, 청년들에게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작년보다 한층 발전된 청년들의 모습과 해맑은 미소를 보며, 더욱 발전한 역원이 되어 그들에게 의롭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재능을 키워갈 기회를 주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이 모임을 위해 수고하신 역원들과 청년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

기사 제공 : 부산 서스테이크 청년 회장단.



앞줄 왼쪽부터 배지훈, 조진숙, 이현경, 임지영, 서미향, 전미경.
뒷줄 왼쪽부터 김선화, 박수형, 박노홍, 김용태.

선교사 훈련원 제 122기

서울 서 선교부

박 노홍 장로(영도 와드)

대전 선교부

김 용태 장로(삼성 와드)

전 미경 자매(진해 와드)

서 미향 자매(진해 와드)

임 지영 자매(신당 와드)

부산 선교부

박 수형 장로(공주 지부)

조 진숙 자매(삼성 와드)

이 현경 자매(풍향 와드)

김 선화 자매(영월 지부)

배 지훈 장로(교문 지부)

온누리 합창단 소식



온누리 합창단의 제1회 정기 공연이 정대판, 이회경, 조은주 등 세 명의 지휘로 11월 27일 류관순 기념관에서 약 두 시간 동안 열렸다. 이 공연에서 합창단은 쌍투스, 기뻐하며 경배하자 외 9곡의 성가곡과, 가고파, 신명금포 타령 등 5곡의 우리 가곡을 불러 이날 참석한 1,800여 명의 관객에게 좋은 느낌과 감동을 주었으며, 특히 서울 스테이크 소속의 박관수 형제가 작곡한 찬송가 메들리가 앵콜곡으로 불리워져 더욱 깊은 연대감을 갖게 하였다. 이 밖에도 중창, 현악 3중주 등 다양한 연주가 이어졌고, 또한 고 김호직 박사의 장남이며, 현재 서울 시립 오페라 단장인 테너 김신환 형제와 합창단이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생명의 양식 등 2곡을 협연하여 무대를 한층 풍성하게 했다. 부족한 연습 기간에도 불구하고 80여 명의 합창단원이 전곡을 외워서 합창한 것에 대해 관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이번 공연을 통해서 온누리 합창단이 머지않은 장래에 수준 높은 합창단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부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합창단은 같은 곡을 가지고 12월 1일과 2일에 전주 덕진 회관과 광주 남도 예술 회관에서 호남 지방 성도들을 위한 공연을 가졌다. 전국적으로 첫눈이 오면서 기온이 급강하하는 등 험상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800여 명의 관객들이 참가했다. 이번 지방 공연 여행에는 박병규 성전장과 고원용 지역 대표가 합창단과 동행하였고, 특히 광주 지역 성도들은 합창단원에게 민박을 제공하는 형제애를 보였다. 전주 스테이크 회원들은 합창단의 노래 소리가 마치 하늘에서 울려 오는 천사들의 찬미 소리와 같다고 표현했다.

리아호나 합창단 또는 말일성도 합창단으로 불리웠던 서울 지역 합창단이 해체된 뒤 5년만에 재결합된 온누리 합창단은 말일성도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온누리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합창단의 부활을 위해 서울 지역 신권 지도자들은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고 후원회를 발족시켜 돕고 있다. *

원주 지방부 대회

1990년도 원주 지방부 후반기 지방부 대회가 11월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서울 선교부 신호범 선교부장의 감리하에 원주 지부에서 개최되었다.

“만일 네가 선을 행하고 또 끝까지 충실하면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은사 중 가장 큰 것이니, 구원의 은사보다 더 큰 것이 없음이라.”는 교리와 성약 6편 13절의 말씀이 대회 주제였다.

이번 대회에서 신호범 부장님을 비롯하여 말씀하신 모든 분들은 작은 일에도 충실히 최선을 다함으로써 신앙을 꾸준히 발전시키며 금식과 기도로 주님의 영을 느끼도록 회원들에게 권고했다. 한편 원주, 제천에 사는 회원들은 이 대회를 위해 영월, 태백 등 먼 곳에서 온 회원들에게 민박을 제공하며 따뜻한 인정을 베풀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장로 1명이 성임되었다. *



앞줄 왼쪽부터: 제1보좌 김영균 형제, 지방부장 김명동 형제, 제2보좌 박수근 형제
뒷줄 왼쪽부터: 서기 임태현 형제, 지석훈 형제

선교 사업을 시작하며



선교사 훈련원 제122기
청주 스테이크 삼성 와드
조 진숙 자매

지금도 비포장 도로에 버스도 적은 평화스런 시골에서 자라난 나는 1987년 2월 15일 만 18세가 되던 날 만년 구도자로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교회를 알고 물몬경을 몇 번 읽었지만 이에 대한 굳은 간증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나에게 1989년은 변화를 가져왔고 특별한 사연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중등부 세미나리 교재를 구입하여 물몬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1년이 소요되었습니다. 물몬경을 덮으면서 모로나이의 권고대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 나의 마음에 영이 임하여 물몬경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많은 교훈 중 니파이와 엘마, 모사이야왕의 아들들의 모범은 내게 선교 사업에 대한 열망과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대제사 직분만을 지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모든 것을 바쳤던 엘마의 선교 사업의 동기는 선교 사업이 순수한 목적을 갖고 나아가야 하는 것임을 말해 주었습니다. 1년간 선교 사업을 준비하면서 목적과 목표는 다른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신앙의 눈은 선교 사업을 마친 나머지의 삶들과 후손과 하나님의 면전을 바라다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선교 사업의 목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입니다. 물몬경을 공부하면서 크게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에 이르는 자의 조건이 잘 나와 있습니다. 니파이는 부친이 본 시현을 자신도 성신의 능력을 입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기를 바랐고 그의 소망은 이루어졌습니다. 참으로 이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영적인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지닌 자가 되어 여의 음성에 귀기울임으로써 주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찌 주를 알지 못하며 주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 자가 이 위대한 사업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눈을 갖는다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 훈련 기간 동안 느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분명 살아 계시며 그분은 저의 아버지이시며 이 사업은 그분의 자녀에게 불사 불멸 뿐만 아니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확신시키는 영이었습니다. 진실로 이 복음의 가치는 위대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저의 구세주임을 알고 있습니다. 요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하나님의 참되고 유일한 교회임을 알고 있고 요셉 스미스는 예언자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약하고 작은 신앙을 가졌음에도 도구로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를 도와 주신 의로운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의 부모님이 육신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이 부름에 응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복음을 전해주시는 선생님과 가르쳐 주신 선교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강서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바자회 수익금 농아 지부에 전달

지난 10월 28일, 서울 중앙 농아 지부에서는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성찬식이 있었다. 이날 강서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단이 방문하여 바자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 모두를 농아 지부 기금으로 전달했다.

강서 스테이크 상호부조회에서는 매년 바자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전달해 왔으며 서로가 말은 통하지 않지만 농아 회원들의 복지를 염려해 주는 어머니들의 따뜻한 사랑이 전해졌다.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라는 상호부조회 모토를 실천한 봉사의 결실이었다. 서울 스테이크에서도 해마다 농아 지부를 위한 기금을 저축하여 왔으며 앞으로 그 기금의 목표액에 달하면 농아 회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할 계획이다. *

기사 제공 : 조현석 형제

반연차 대회 음악

대회 음악을 준비한 합창단.
물몬 청소년 합창단(지휘, 로버트 시 보우든; 오르간 반주자, 클레이 크리스찬슨; 토요일 오전 모임);
유타 바운티풀 및 유타 밸 버터 지역의 청녀 합창단(지휘, 줄리 헤이즈 휴잇; 오르간 반주자, 클레이 크리스찬슨; 토요일 오후 모임); 태버내클 합창단과 물몬 청소년 코러스의 단원으로 구성된 연합 남성 합창단(지휘, 제럴드 오틀리와 로버트 시 보우든; 오르간 반주자, 존 룬거스트; 신권 모임); 태버내클 합창단(지휘, 제럴드 오틀리와 도널드 리플링지; 오르간 반주자, 로버트 컨디과 존 룬거스트; 일요일 오전 모임과 오후 모임)